

[기획]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08년 11월 13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지역기업 성공 사례·사기 진작 기획 발굴해야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위원장)



광주 이미지 개선
밝은 뉴스
많이 나왔으면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식 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김현석(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광주일보 은편클럽 총무), 문기전(광주YMCA 금남로회관 관장), 문상필(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구현(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장), 이묘숙(도슨트협회 회장·주부), 조현중(국립 광주박물관장) 위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권순석(화순전남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임선숙(변호사·전 광주

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조현중 국립 광주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3기 독자위원회는 2009년 말까지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광주일보의 신문제작과 편집방향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지면 개선, 콘텐츠 제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진영 광주일보 대표이사는 회의에 앞서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에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광주일보는 새로 쓰는 마음으로 독자위원들의 평가와 비판, 조언을 들겠다. 또 독자위원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해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구현 (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장)



사람 중시하고
삶 풍요롭게 하는
언론 지향을

광주·전남 미래 비전 제시...기획기사 뒷받침해 달라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지역민 관심사
쌍방향으로
끌어 들여야

▲조현중(국립 광주박물관장·제3기 위원장)=광주·전남 대표 신문이기에 광주일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독자위원회는 때때로 비판을 통해 광주일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한다.

▲이구현(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장)=언론재단 광주사무소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발행되는 31개 신문을 매일 분석한다. 호남지역에 유독 신문이 많다고 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신장돼 있다는 증거다. 신문이 많아보니 그 중에는 오류도 보이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광주일보가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현석(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광주·전남지역을 두고 신문이 난립했다고들 한다. 사실 그렇다. 이처럼 어지러운 신문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 신문만의 정체성과 정론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발행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역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을 확실하게 펼쳐나갔으면 한다.

▲문상필(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광주일보 보는 그동안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특정한 생각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자나 시민기자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느끼는 감도는 차이가 있다. 장애인 시민기자로서 현장에 투입한다면 더욱 근원적인 문제제기까지 접근해 기사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지난 4일 참가 56주년 특집 ‘뉴파워 56인’을 소개했다. 후속기사로 이들 지역 리더들이 고민하는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인지 기획기사가 뒷받침해 나왔으면 어떨까 싶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움이 됐다. 교육관련 기획들을 축소하지 말고 많이 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이 함께 보는 신문을 위해..

▲이구현=신문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중에게 쉽게 영합하다보면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비판과 비난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대안을 내세워 또 하나의 신문이 생긴다. 이같은 매커니즘을 명심해 일관성을 견지하길 바란다.

문화인 만드는 데 앞장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광주일보 은편클럽 총무)=지방지를 보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내 주변, 내 이웃, 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지를 선택한 독자는 위대한 것이다. 광주일보를 펴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나의 이야기’들이 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신바람나는 뉴스, 희망을 주는 뉴스를, 어렵더라도 매일 하나씩 그것도 1면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현중=광주는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문화도시가 되려면 광주시민이 문화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도시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문화인이 되는 것이다. 굳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홍보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광주시민이 문화인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입어야 한다. 광주일보가 문화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구현=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언론,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언론, 지역 리더십을 가진 언론이 됐으면 한다. 또 독자들을 존경하는 신문, 독자가 존경하는 신문이 되도록 희망의 뉴스를,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을 만들어가자.

/정리=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



지역 리더로서
책임과 역할
확실하게 펼쳐야

문기전 (광주YMCA 금남로회관장)



인문학적 성찰
깊이 있는 기사
더 발굴을

정론지 역할 다해줄길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제작 방향을 지역민의 관심사·일상사로 설정하고 이들을 쌍방향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지금은 경제가 가장 관심사다. 지역 기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획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한다. 스토리텔링은 이미 신문의 기능을 떠났다. 앞으로는 심층·해설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 통계를 읽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기사를 생산했으면 한다.

▲조현중=광주에서 나오는 신문들이 광주 이미지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스스로 광주를 왜곡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자. 21세기는 이미지 사회다. 광주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밝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문기전(광주YMCA 금남로회관 관장)=좋은 기사는 울림이 있어야 한다. 물질 문명의 대안으로 정신적·문화적·인문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깊이있는 기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드러나지 않은 정겨운 공간, 흔적이 사라진 공간 등을 소개하는 기획을 고민해보자.

가족이 함께 읽는 신문패야

▲이묘숙(도슨트협회 회장·주부)=광주일보 지면을 보면 중앙지를 따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지역 뉴스마저도 중앙에 빼앗겨 후발지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보인다. 중앙지를 모방하는 것이 정론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또 보도자료나 데스크 의존도가 높아보니 심심찮게 오보가 나온다. 현장에 없기 때문이다. 생동하는 기사가 없고, 신문이 살아 꿈틀대지도 않는다.

예전 기획에 ‘논술’이 있었다.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

이묘숙 (도슨트협회 회장·주부)



교육관련 기획
축소 말고
많이 다루도록

문상필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문화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

류동훈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매일 하나씩
희망주는 뉴스
실어 달라